



전쟁의 원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연구

남보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왜 전쟁인가

전쟁은 인간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갈등 양식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라 단언했다.

이 책은 전쟁의 원인을 국제 체제, 국가, 개인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탐구한다.

* 케네스 월츠가 정교하게 다듬은 분석틀이다.



목차

분석의 구조

01

국제 차원

권력 구조와 세력 균형의 파괴

02

국가 차원

국가 능력과 권력 동원의 정치학

03

인간 차원

지도자 인식과 전략적 오판



국제 차원

권력 구조와 세력 균형의 파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전형이다. 러시아는 전후 질서의 규범적 틀을 거부하고, 자신을 '세력권을 회복하는 제국'으로 표현했다.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과 나토 확대

1994

PfP 출범 — 동유럽·구소련 국가들이 나토와 협력하는 통로

1999

폴란드·헝가리·체코 나토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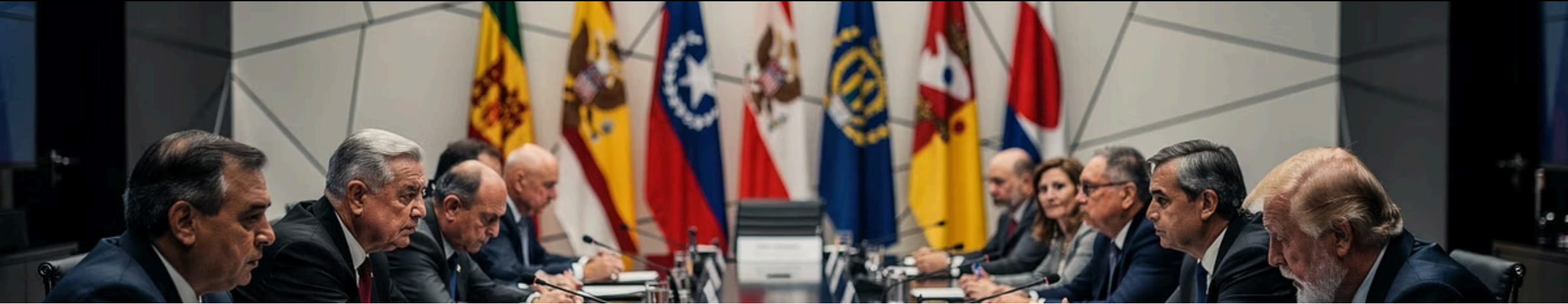
1997

나토-러시아 기본문서 체결 —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선언

2004

발트 3국 나토 가입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 확장을 '러시아를 향한 동진'으로 인식하고 의심했다.



전환점

2008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정상선언 제23항: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장차 나토 회원국이 될 것'

미국·폴란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적극적

독일·프랑스

러시아 반발 우려로 반대

러시아

'레드라인 침범'으로 간주,
군사적 대응 천명

군사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군사 연계



주요 연합훈련

씨-브리즈(**Sea Breeze**)

흑해 연합 해상훈련, 매년 **2-3**
천 명 참가

래피드-트라이던트

미국·폴란드 등 **10**여 개국 참가

유니파이어 작전

캐나다 교관단 **200**명 순환 배
치, 수만 명 수료

러시아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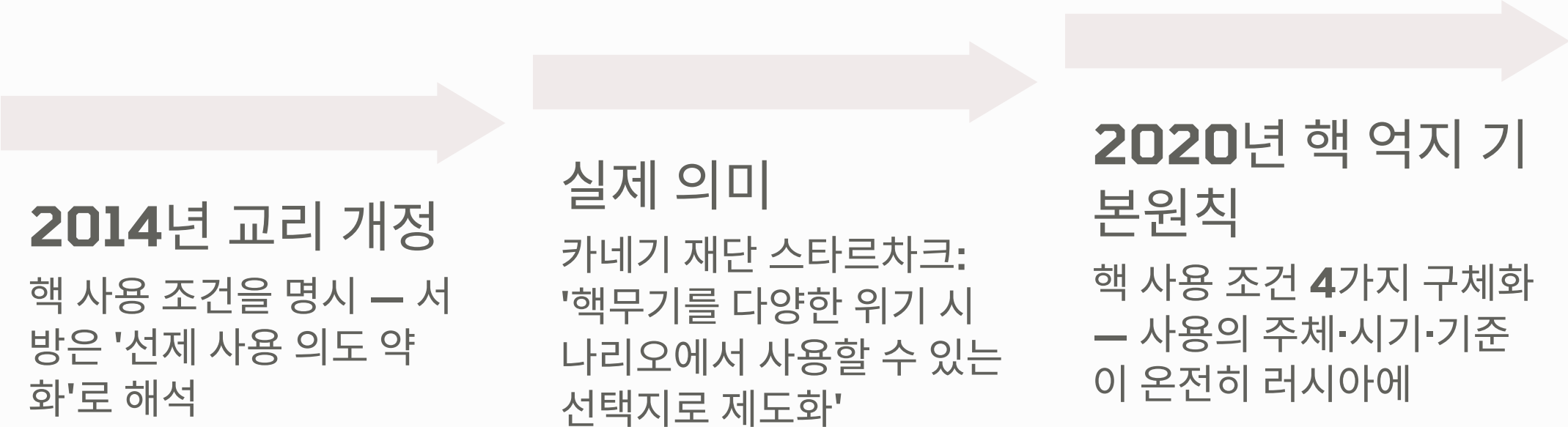
러시아의 군사적 대비

러시아는 서부군관구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제1근위 전차군을 재창설했다. 예하 부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30-60km** 떨어진 위치에 집결보유했다.

2021년 '자파드 2021' 훈련 참가 부대 상당수는 원대 복귀하지 않고 국경 인근에 남았다. 이들이 **2022년 2월 24일** 침공의 주력부대로 운용되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 교리의 전환



서방은 냉전기 군비통제 틀에 머물며 '핵 사용 불가' 담론을 유지
→ 핵 비대칭 발생

나토의 군사적 대응과 한계

1

2014 웨일스 정상회의

준비태세실행계획(**RAP**)
채택, '나토대응군 **4×30'**
개념

2

2016 바르샤바 정상회의

강화된 전방배치(**eFP**) —
발트 **3**국·폴란드에 다국적
전투부대 배치

3

구조적 한계

약 **40,000**명 규모로 러시아 억지 가능성에 회의적
평가

다극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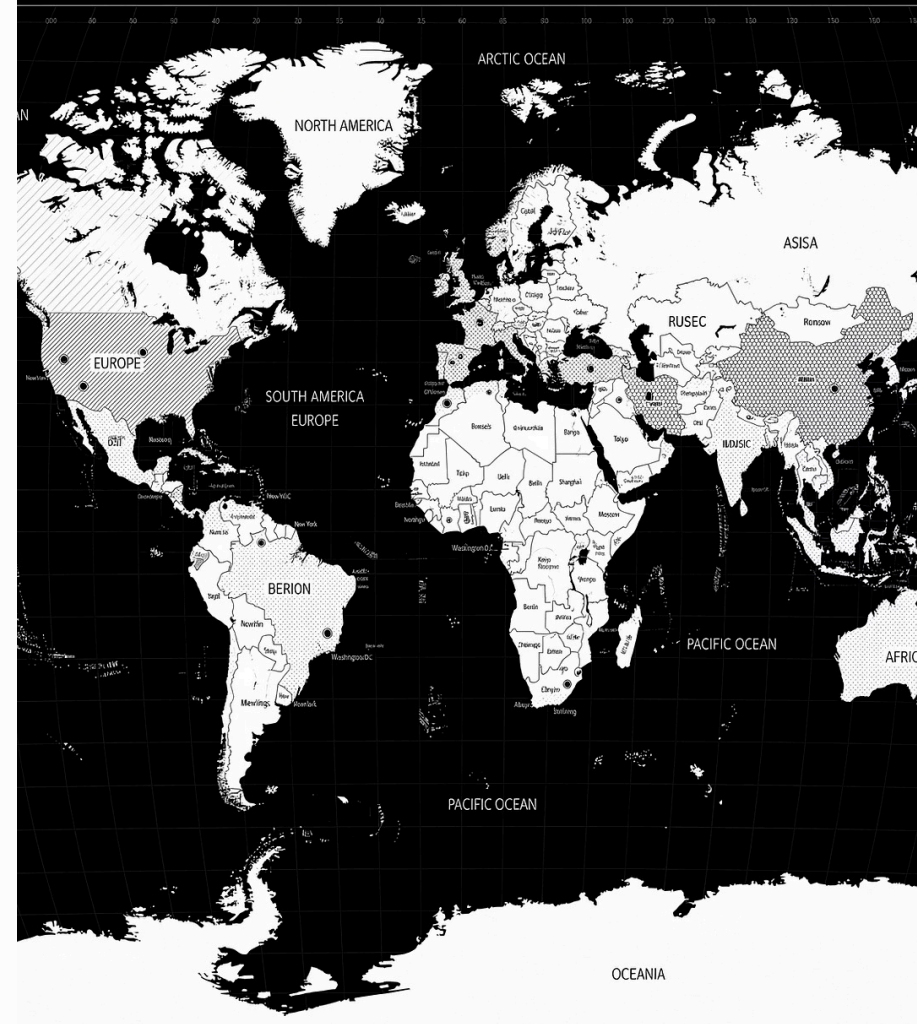
다극 체제와 전쟁 가능성의 증대

냉전기 양극 구조는 핵 억지와 세력 균형
으로 안정성을 유지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의 '단극적 순
간'은 말 그대로 순간에 머물렀다.

GLOBAL GEOPOLITICAL LANDSCAPE

Contemporary Balance of Power



양극에서 다극으로

1

양극 체제

핵 억지와 제도화된 위기관
리로 전면전 억제

2

단극적 순간

미국 패권 — 코소보·이라크
전쟁으로 전략적 여력 고갈

3

다극 체제

동맹 불안정성, 세력 이동의
불확실성, 상호 불신 증대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푸틴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정면 도전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지도자가 처음으로 서방 주도 질서를 부정한 선언이었다.

두 개의 분수령

러시아 강경 노선의 기원

1999 코소보 공습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전개 — 러시아에 커다란 충격. '다음 차례는 러시아일 수 있다'는 불신 확산

2008 부쿠레슈티 선언

'우크라이나·조지아 나토 가입' 명기 — 러시아 불안감 자극. 같은 해 조지아 침공으로 실행력 과시

미어샤이머: '러시아의 반응은 선택이 아니라, 탈냉전 질서가 만들어낸 구조적 필연이었다'

안전장치의 무력화

2014

러시아 **G8** 배제,
나토-러시아 이사회 실무 협력 중단

결과

전략적 무기 사용의 불확실성 증가,
선제공격 유인 강화

2019

중거리핵전력조약(**INF**) 공식 종료
'유럽 안보 질서의 초석' 붕괴

냉전기의 양극 구조가 '위험하지만 관리 가능한 질서'였다면,
다극 체제는 '관리되지 않는 불안정한 체제'이다.

동맹 확대와 억지 실패

부다페스트 각서의 한계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을 약속. 그러나 군사 개입 조항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문서 명칭조차 보장(**guarantee**)이 아닌 **확약 (assurance)**에 머물렀다. **2014년, 2022년** 러시아 침공 시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제적 압박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가즈프롬의 천연가스 가격 인상

268.5\$ (/1000m³)

2013년

385.5\$

2013년 말

485\$

2014.4월

우크라이나 수입 천연가스의
90% 이상이 러시아산.
실질 **GDP 6.6-6.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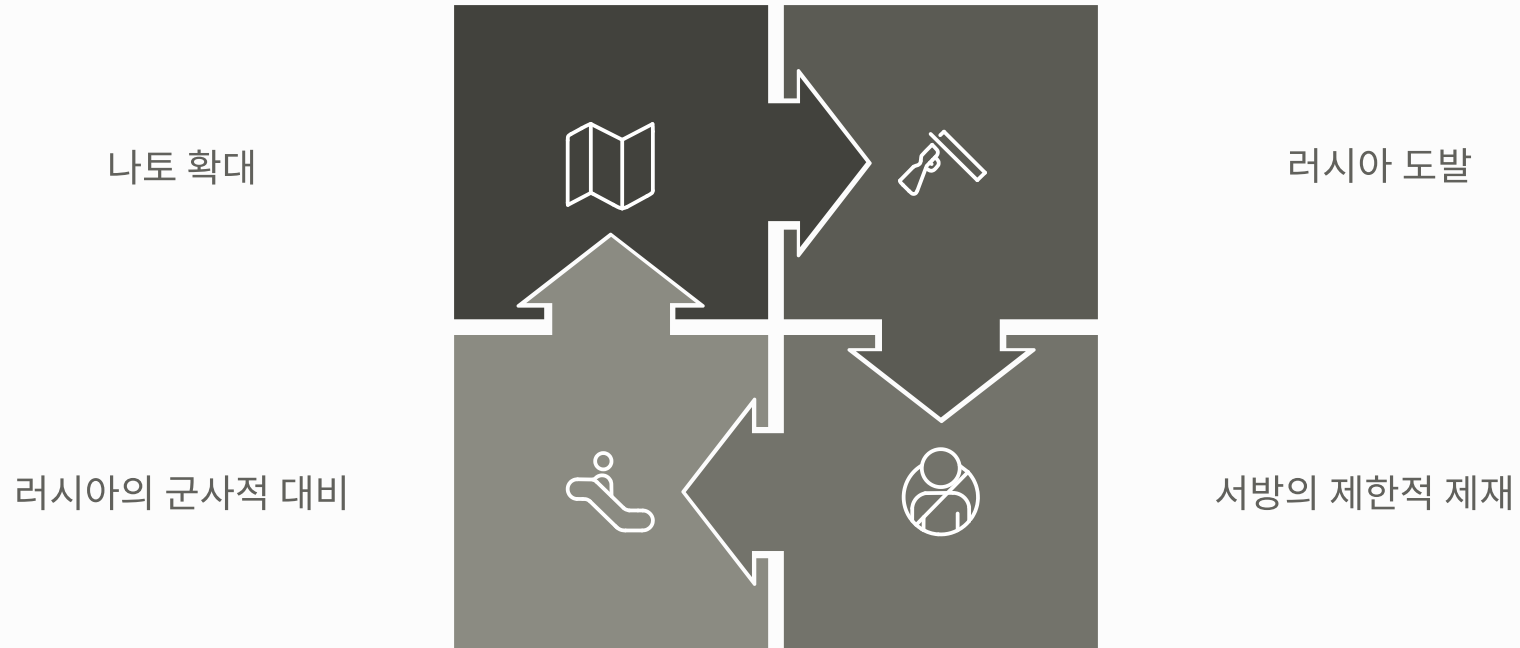
유로마이단

우크라이나 내부 결속과 정체성 전환

2013-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 친러 야누코비치 정권의 **EU** 협정 체결 연기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 가즈프롬의 가스 가격 인상이 겹치며 시위는 확대되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로 규정. **2014년** 이후 헌법에 **EU·나토** 가입을 국가 목표로 명기했다.

동맹-억지 딜레마의 악순환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지역적 도발'로 평가절하하고, 침공 가능성을 관리 가능한 위기로 축소 평가했다.

구조적 실패

억지 혼선(Deterrence Diffusion)

서방의 의도

'비확전 억지'

확전 방지를 위한 제한적
제재와 외교적 항의

러시아의 해석

'개입의지 부재와 능력 부족'

전면 공격의 유인 제공

결정적 오판

2021년 12월 NSC 보고서
'러시아가 단기간 내 전면침공
에 나설 개연성이 낮다'

침략적 의도를 가진 국가를 억지하려면 신뢰성 있는 위협, 단일한 신호,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서방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음 장으로

국가 차원: 국가 능력과 권력 동원의 정치학

상대적 국력 불균형
선제공격의 유인

국가 동원 능력
전쟁 승리의 가능성

권위주의 **vs** 민주주의
체제가 전략적 선택에 미친 영향

